

광주 송정매일·강진읍시장 관광명소 탈바꿈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각 7억원 투입

지역 문화·역사·특산품 연계 대표시장 육성

광주 송정매일시장과 강진읍시장이 올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됐다. 2곳의 시장에는 3년간 각각 최대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4일 광주·전남 각각 1곳과 제주 1곳(제주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이들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하고, 문화체험장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 시장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송정매일시장은 주변의 송정 5일 시장, 송정역전시장과 함께 공동으로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됐으며 향후 호남선 KTX 완공과 함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강진읍시장은 지난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로

운 모습으로 재개장했고, 강진의 먹거리, 불거리, 즐길거리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오감누리타운 조성 등과 함께 전남 서남권의 대표 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들 문화관광형시장은 각 자치단체가 추천한 시장에 대해 입지 및 환경과 주변관광지와 연계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성공추진지 등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시장경영진흥원의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중기청이 2008년부터 시작한 문

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문화와 시장특성을 살려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중기청이 조사한 결과, 2012년 문화관광형시장의 매출액은 선정 전에 비해 평균 32.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1%, 고객 수는 29.04명에서 32.17명으로 10.8% 각각 증가했다.

전국에서 94곳이 선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은 광주·전남지역에 9곳이 있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11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양동시장과 대

인시장, 전남에서는 보성5일장, 여수 교동시장, 곡성기차마을시장, 북포 종합수산시장, 장흥토요시장, 나주 목사고을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등이 선정된 바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선정된 시장에 사업단을 만들어 상인들이 하기 힘든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 자체소식지 발간 등 관광서비스 도입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 시장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시장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 알제리서 1억달러 변전소 건설 수주

북아프리카·중동 EPC 강자로

효성이 알제리에서 잇단 대규모 초고압변전소 수주로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EPC분야의 강자로 부상했다.

효성은 최근 알제리 전력청(Sonelgaz)으로부터 서북부 마르사(Marsat) 지역에 1억 달러규모의 400kV 변전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일괄입찰방식(EPC, 설계부터 재구매 건설까지 일괄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효성의 단일 변전소 수주로는 최대 금액으로 지난 2010

년 알제리 동북부 하시 메사우드(Hassi Messaud) 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400kV 초고압변전소 4기 수주 성과를 잇는 대규모 수주다.

백홍건 효성 전력PJ장(부사장)은 "이번 변전소 수주는 그동안 효성이 알제리, 카타르, 이라크 등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쌓아온 초고압 변전소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효성은 앞으로 글로벌 톱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영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LH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와 통합 안된다"

전북 정치권·도민 강력 반발

LH측 "경영 정상화 대안... 확정단계 아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북본부를 광주·전남본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도민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합하면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24일 LH에 따르면 내년 LH 본사 진주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관련, 여러 효율경영 방안 중 하나로 지역본부 통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본부 통합안이 흘러나오면서 전북지역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2011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LH 본사가 경남혁신도시로 옮겨간 데 따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

태에서 권역별 통폐합이 추진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LH사장이 지난 20일 전북본부를 방문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지역본부별 권역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전북본부는 호남본부로 통폐합돼 광주·전남에 설치될 우려가 크다"고 통합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도에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도 "본사를 경남으로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에 통합하려는 LH의 시도는 비열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이라고 반발했다.

유성열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와 송

하진 도지사 예비후보도 각각 "그동안 전북의 많은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지역에 통·폐합되는 희생을 당했다"며 "전북의 핵심사업을 진행중인 LH 전북본부의 예측은 사실상 전북 지역 대형사업의 예측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LH 전북본부는 현재 전주 만성·효성지구, 전북혁신도시, 국가 식품클러스터, 군산 역세권, 완주 삼봉지구 등 총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역본부 통합은 아직 직원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문제"라며 "단지 경영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중인 뿐이어서 확정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

24일 6년 연속 삼성 스마트에어컨 모델로 활동중인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획 단계부터 김연아 선수를 모티브로 이 에어컨을 제작했으며 피겨러의 왕관과 스케이트날의 엷지를 각각 디자인 패턴으로 적용했다.

(삼성전자 제공)

기아 쏘울,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유럽 판매 돌풍 기대

기아자동차 쏘울(사진)이 올해 iF 디자인상에 이어 레드닷 디자인상마저 수상하며 유럽시장에서 판매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24일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은 '2014 레드닷 디자인상'(2014 red dot Design Award) 수송디자인 부문에서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와 i10과 함께 본상(Winner)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쏘울은 지난 2009년 1세대 모델이 한국차 최초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2세대 모델도 지난 1월 iF 디자인상과 이번 레드닷 디자인상을 동시 석권, 신형 제네시스와 함께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미 북미 박스카(BoxCar) 시장을 석권한 쏘울은 수상을 계기로, 지난 1월 출시된 유럽시장에서도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



다.

기아차는 2010년 벤가, 2011년 K5·스포티지R, 2012년 모닝·프라이드, 2013년 프로세이드·씨드·씨드 스포츠왜건(SW)·카텔이 한국차 최초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기업을 토했다.

레드닷 디자인상은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heim Westfalen)에서 주관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무안공항 지난달 국제선 여객 58% 늘어

지난달 무안공항의 국제선 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의 지방공항 부정이 취항 확대 무안과 양양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무안공항의 경우, 지난해 2월 6187명이었던 여객 수는 중국 및 동남아(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부정이 노선이 취항하면서 올 2월 9760명으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57.8%나 증가했다.

한편, 전체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취항 및 운항편 확대

와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 해외 관광 증가, 소치동계올림픽에 따른 러시아 노선 등 유럽노선 여객 증가, 항공기 결항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7.0% 상승해 역대 2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5.55(+10.61)	▼ 코스닥지수 545.60(-1.21)	금리(국고채 3년) 2.89%	▼ 원·달러 환율 1077.80원(-2.50)
----------------------------	--------------------------	---------------------	------------------------------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성촌**

유·스퀘어점

유성촌 무한리필 돈까스

- 성인..... 10,900
- 초등학생..... 7,000
- 소인(미취학)..... 4,000
-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주스)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